

濟州大學圖書館과 地域社會

韓 昌 榮

(濟州大學圖書館長)

序 言

어쩌다 보니 大學圖書館의 管理責任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 大學의 職制上 圖書館學에 대해서는 아무런 知識도 없이 圖書館을 運營하는 補職자리에 머물러 온 지 半年밖에 안 되는 제가 圖書館專門誌에 敢히 學筆한다 함은 一種의 蠻勇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中間의 經驗과 先輩의 가르침과 저의 構想을 陳開하여 보려고 합니다. 때문에 拙稿는 圖書館學의 價値가 없는 것이라고 自認합니다. 이 點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濟州大學과 地域社會

濟州大學은 濟州道란 社會內 存在인 同時에 韓國이란 社會內 存在입니다. 따라서 濟州大學은 現 韓國社會內에서 濟州道가 지닌 使命가운데서 自己位置에 相應하여야 할 일을 發見해 내고 그를 遂行하여야 합니다. 濟州道가 맡은바 使命은 自己가 지닌 特殊 天然資源을 開發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濟州大學의 使命은 地方大學으로서 古典的인 象牙塔式 抽象的眞理만을 探究하는 것을 止揚하고 實効性있는 高等知識과 技術을 授與하는 地域社會發展과 開發에 先行條件인 實踐的인 人材를 輩出하고 原始的生産樣式을 改善하여 濟州地域의 氣候, 風土, 其他 立地條件에 適性的인 새로운 資源을 試驗發見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註 1) 이와 같이 濟州大學과 地域社會開發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바 濟州地域社會의 學術資料를 開拓하는 役軍과 새 文化의 創造者를 길러 내는 데는 大學의 心臟部인 圖書館과 實驗室의 役割이 크다고 봅니다. 故로 本大學圖書館은 眞理探究와 地域社會開發이란 前提에서 그 位置를 定礎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圖書館의 概況

1. 沿革

1952年 5月 27日에 濟州大學初級大學이 創設됨과 同時에 6百餘卷의 文庫形式圖書室로 發足하여 文教部에서 120卷 濟州公報院서 300卷을 寄贈받았으며 濟州

大學後援會서도 圖書를 重點的으로 購入하여 藏書量을 增加시켜 오다가 1959年 5月 31日에 初代館長 車駟權 教授를 館長으로 舊館을 開館하였었습니다. 그 후 車館長은 U S I S의 斡旋으로 在釜山美軍圖書館에서 洋書 1,500卷을 寄贈 받아 왔으며 亞細亞財團 등 援助機關에서 繼續 寄贈書가 오고 있으며, 國防大學院서도 本大學과의 姉妹關係로 書籍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安在祐氏 등 在日僑胞들이 多量의 圖書를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昨年初부터 本大學同窓에서 募書運動을 벌여 繼續 寄贈圖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本大學圖書館의 構成은 法文學部에 本館이 있고 農學部(西歸浦所在)에 農學部圖書館과 併設教育科에 圖書館이 1962年 3月 1日자로 各各 開館을 봤습니다.

2. 開架式採擇

本館에서는 教室을 臨時 圖書館으로 사용 하여 오다가 今年 3月 20日에 新築圖書館으로 移徙하여 開架式으로 開館하였었습니다.

新館은 64年 10月 5日에 定礎하여 66年 12月 24日에 完工을 봤습니다. 內部備品은 亞細亞財團韓國支部代表 이신 石燕山氏의 特殊한 協助로 同財團서 援助해 주었습니다.

開架制를 擇하는데 있어서 우리 나라와 같은 現實에서는 運營하기 難하다는 一部 異見도 있을 수 있겠으나 大體는 그 制度를 擇하는 前提로서 ① 學生의 構成이 大部分이 本道 胎生이라는 點 ② 學生數가 他大學에 比하여 적다는 點 ③ 學生들의 性格이 本道의 淳風良俗에 依함인지 溫厚하고 素朴하다는 點 들을 枚舉할 수 있습니다.

開架式으로 開館한 以來 3月間의 圖書館利用率은 開架式 當時보다 越等하게 많다는 點이 統計에 의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石燕山氏도 開館式辭에서 強調한 바와 같이 濟州大學圖書館의 開架制가 잘 運營되어 他大

註 1. 「제주도」 창간호 p. 119—120

濟州大學의 가는길, 文鍾哲

「제주도」 7호 p. 59—62

濟州大學의 地域的課業, 玄平孝

「제주도」 11호 p. 101—104

濟州大學의 地域的特色, 濟大法科

學도 同制度를 하루 속히 採擇되기를 바란다는 要旨의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其間 3個月의 實況을 가지고서는 開架制 成功을 速斷하기에는 時期尙早라고 보겠으며 今年末까지 가 봐야만 確信을 얻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손」이 不足하지만 運營面에서 支障과 事故가 開架式을 取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點입니다.

地域社會와 本大學圖書館의 役割

1. 郷土資料의 價値

地域開發의 世界的인 權威者인 「엔」博士는 地域社會開發의 要件으로서 ① 無知를 克服하는 教育 ② 貧困을 克服하기 爲한 經濟力向上 ③ 疾病을 退治하는 保健 ④ 社會의 無氣力을 打破하는 自治力을 들고 있읍니다마는(註 2)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無知를 克服하는 教育』을 列記한것은 그 地域社會教育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強調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次大戰後 많은 나라들은 郷土社會教育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이 運動을 積極推進하여 自國의 國力을 伸張시키는데 盡力하여 그 成果를 擧揚한 國家가 많은 國家들로부터 마음속 깊이 思惟케 되었다는 것은 이 運動이 얼마나 郷土社會教育에 貢獻하고 있다는 것을 端的으로 證言하고 있습니다.(註 3) 郷土社會教育의 테이터는 郷土資料인마 그것이 얼마나 重要한 價値를 가졌나 하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圖書選擇에 있어서 그 圖書館이 位置하고 있는 地域社會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大端히 重要하다(註 4) 하였거니와 本館은 眞理探究圖書를 收書하는 同時에 濟州道의 立地的素地에 따른 <濟州島의인 圖書館>(註 5)으로 育成시키고자 努力하고 있습니다. 이는 各大學이 한두 가지씩 特色있는 集書를 하여 資料面에서 各大學圖書館의 協力을 期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도 符合하는 것입니다.(註 6) 이러한 協力は 延世大中央圖書館과 本館은 資料交換協定을 맺어 實施하고 있습니다.

2. <濟州島의인 圖書館>으로

晩時之嘆은 있으나 濟州道關係文獻을 보다 充實하게 積極的으로 蒐集하기 위하여 66年度 第3回 圖書館週間을 記念하면서 昨年 4月 18日에 「제주돌」體制를 設立 하였습니다. 그래서 收書原則에도 郷土資料를 充實히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道內外 各機關 및 文化界에 郷土資料를 蒐集하는데 協助해 줄 것을 당부하여(註 7) 이 方面에 繼續 注力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돌」體制下에 郷土資料調查部를 두고서 資料調査 및 蒐集에 徹底를 期하고 있습니다.

雜誌書架에는 學生들에게 地域社會開發에 關心을 가지도록하기 위해서 이 故場에 關한 刊行物인 「제주도」, 「제주시」, 「북군공보」, 「濟州商工」, 「연수」, 「漢拏山」,

「耽羅」등을 陳列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파일(file)관계는 「濟州道學」을 밑받침 하는 資料만은 充實히 하려고 今年初부터 着手 하였습니다. 圖書館事業으로 故 石宙明先生님의 遺蹟(濟州島關係文獻目録集, 1948년까지)을 받들어 濟州島文獻目録을 作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構想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國立中央圖書館처럼 濟州道問題에 關한 「百科의 집」을 設置할 計劃이며(註 8) 濟州島의 立地條件과 類似한 島嶼의 郷土資料를 相互交換할 계획입니다.

結 語

「올센」(Olsen)이나 「쿡」(Cook)이 地域社會와 學校와의 紐帶에 關하여 論한 그 自體가 郷土社會의 開發에 그 社會의 圖書館이 積極的인 奉仕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註 9)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圖書館自體의 努力만으로는 所期의 目的을 達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關係分野의 機關 및 個人的 後援과 協助가 必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李朝肅宗 26年에 大典叢典無窺錄等書를 濟州에 보냈다는 記錄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領議政 徐文重이 <濟州乃是兵火萬及處……>(註 10)라고 한바와 같이 本道는 地政學的으로 安全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愚見으로는 우리 나라의 貴重한 文獻을 複寫 散在시키는데 濟州道가 適地라고 思料됩니다. 濟州道關係文獻을 徹底히 保存하고 우리 나라 貴重文獻을 保管한다는 것은 文化濟州로서 當爲요 濟州地域社會發展의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本道 圖書館들의 存在價値와 役制이 있습니다. 本大學圖書館도 이러한 役割을 다하는데 一翼을 擔當하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圖書館이 오늘 날의 모습으로 되기까지에 陰으로 陽으로 도와주신 機關 및 諸位에 感謝드리며 특히나 開架式圖書館開館에 援助해 주신 亞細亞財團과 그 運營과 內部設計面에 高見을 주시고 直接指導하여 주신 圖協 崔部長님과 金部長님께 感謝드리며 저의 글을 맺습니다.

註 2. 동아일보, 66. 10. 8.

註 3. 도협일보, 66年 3月號, p.19-20

郷土學校와 學校圖書館, 郭眞鎔

註 4.國會圖書館報, 66年 3月호, p.7

圖書館資料의 近代化, 李春熙

註 5. 제주도, 16호 p.136

濟州道圖書館分野의 課題, 梁淳斑

註 6. 도서관, 66年 3月(No.103)

大學圖書館의 協力, 金錫淳

註 7. 제주신문, 66年 2月 22日字, 4面, 廣告欄

註 8. 제대신보, 66年 5月 31日字

註 9. 도협일보, 66年 3月, ibid

註 10. 增補文獻備考 48卷 p.10